

주현절 후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3년 2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4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번 시편 10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20:1-17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여겨주심으로”	찬양대
설 교 Sermon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You Shall Not Make Idols For Yourself)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만 사랑하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수 많은 생각을 하고 수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행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 일상의 분주함과 피곤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우리도 신실하게 좇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119:10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개역개정, **출 20:4-5상**)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NIV, **Exodus 20:4-5a**)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5 (주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2/10 (금)	2/11 (토)
	창38	창39	창40	창41	창42	창43	창44
본문	막8	막9	막10	막11	막12	막13	막14
	욥4	욥5	욥6	욥7	욥8	욥9	욥10
	롬8	롬9	롬10	롬11	롬12	롬13	롬1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8 오후7:30)	일곱문장으로 읽는 구약(1) - “창조” (창1:1)
토요 새벽기도회 (2/11 오전6:30)	“주의 권능의 날에” (시110:1-7)

지난 주일(1/2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4)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1-17)

오늘 본문(출20장)은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절정이 되는 본문입니다. 일명, ‘데칼로그 (Deca+Logos)’ 즉, ‘열 가지 말씀’이라는 뜻의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제한하거나, 옳어 매는 (어떤) 족쇄이기 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뜻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마22:36)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마22:37-38)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즉,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며, 십계명의 핵심도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해 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고(Acknowledge God), 2)둘째,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Stand on the side of God), 3)셋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Respond in faith).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14:21)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